

지역 매아리

정읍소방서, 화재예방 총력

정읍소방서(서장 김중수)는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연등설치와 촛불·전기·가스 등 화재...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사할 화재발생 건수는 261건이며 인명피해는 10명(사망, 부상9)이다.

이에 정읍소방서는 관내 사할 2개소를 찾아 ▲소방·가스·전기 등 안전시설 점검 및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촛불·연등과 같은 화재취약요인 제거 및 화재안전관리 지도 ▲산간·오지 등 소방차량 진입 불가 지역 자체 대응체계 강구 등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요 사할·목조문화재 안전컨설팅, 중요 사할 등에 소방력 전진배치로 초기대응태세 확립, 화재특별경계 근무 실시 등 부처님 오신 날을 대비하여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중수 정읍소방서장은 "소방서와 사할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단 한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행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공약사업 보고회 가져

정읍시가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유진섭 시장이 주재한 보고회에는 부시장과 국단소장, 공약사업 주관 부서 실과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약사업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부진사항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은 △일자리 경제 분야 8개 △농축산 분야 11개 △교육복지 분야 21개 △문화관광 분야 21개 △도시건설 분야 21개 등 총 5개 분야 82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495억원(기투자 1천202억원, 임기 내 7천252억원, 임기 후 2천441억원)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약사업 전체 평균 추진율은 25%를 보이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공약사업은 미래 희망 정읍을 실현시킬 핵심사업일 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만큼 사업추진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 부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공약 사업을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주말엔 고창 청보리밭으로”

고창 청보리밭축제 내일 개막... 수유실·물품보관대 등 관람객 편의시설 대폭 확충

고창청보리밭축제는 지금 청보리가 겨우내 얼어있던 대지를 녹이고 초록빛 얼굴을 내밀고 있다. 30만평의 광활한 대지에 초록빛으로 물든 청보리가 관광객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 축제인 '고창 청보리밭축제'가 오는 20일부터 5월12일까지 23일간 '봄맞이러 가자! 고창 청보리밭으로'라는 주제로 고창공음면 학원관농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16화제를 맞는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전국 최초 '보리'를 주제로 한 경관농업 대표 축제다. 고창군이 주최하고 고창청보리밭축제위원회가 주관하며 농협고창군지부, 한수원(주)한빛원자력본부가 후원한다.

올해는 개막전부터 청보리밭 황금순과 트라아트가 SNS를 뜨겁게 달구며 '내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고창군은 관광객 편의시설(화장실, 물품보관소, 수유실)을 대폭 확충해 불편함 없이 청보리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축제장을 고창군 전체로 확대하는 신선한 시도가 진행된다. 축제기간 중 청보리밭 행사장 방문객에게 관내 모범음식점과 숙박업소 이용시 10% 할인 쿠폰을 나눠줄 예정이다. 고안돌박물관과 고창음성 무료입



고창군이 지난 16일 공음면 학원관청 청보리밭에서 유기상 군수 주재로 고창청보리밭 축제 추진상황보고회를 가졌다.

장, 석정휴스파와 상하농원 입장도 30% 할인된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16일 공음면 학원관청 청보리밭에서 유기상 군수 주재로 고창청보리밭 축제 추진상황보고회를 가졌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 청보리밭

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즐겁게 축제를 즐기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새로운 프로그램 등 세심한 준비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우리가 만들어요’

정읍경찰서, 명예경찰소년단 ‘뜨레 지킴이’ 선포

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는 최근 명예경찰소년단 발대식을 가지고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는 ‘뜨레 지킴이’가 되기로 선포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경찰관, 학생 및 교사 등 총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학교생 60명과 지도교사 7명을 위촉했고, 발대식 후에는 경찰장비를 직접 체험해 보는 장구체험과 경찰서 112상황실을 견학하고 경찰 순찰

차 및 사이카 탑승 및 과학수사 시문체취 체험을 했다.

정읍경찰서 명예경찰소년단은 사이버 폭력이나 따돌림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정읍에는 왕따 없는 학교를 만들기다짐하며, 이를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친구와 멘토가 되어주어 등하고, 점심식사 등을 같이 하며 피해 친구를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폭력 캠페인 등에 적극 동참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우수 활동을 한 학생을 선발하여 연말 표창을 할 예정이다.

명예소년경찰단 대표 김우진(한솔초 6학년)학생은 "자랑스러운 명예경찰 소년단원으로서 모든 학생의 모범이 되며, 친구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신일섭 서장은 "앞으로 명예경찰 소년단원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매사에 솔선수범하여 피해학생의 친구가 되어주는 등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적극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사업 시행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019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학자금을 대출받아 공부하는 부안출신 대학생들이 재학기간 중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

행된다.

지원대상은 부안군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모두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부모의 사망 경우에는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지원내용으로 지난 2016년 1월 1일

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취업후 상환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차 2.5%를 지원하게 되며 신청접수는 19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를 방문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사업을 비롯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등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기업체 기술사업화 물꼬 튼다

정읍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과 간담회 가져

정읍시가 신정동에 소재한 국책연구소의 기술력을 지역 내 기업체에 접목시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시는 지난 3일 첨단방사선연구소와 기업 간 간담회에 이어 18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원장 김차영)과 기업 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을 비롯해 생명공학분야 벤처기업이 집적된 이노비즈센터 입주기업 5개소와 정읍귀리명품사업단, (주)이너네이처, (주)정농바이오 등의 기업체가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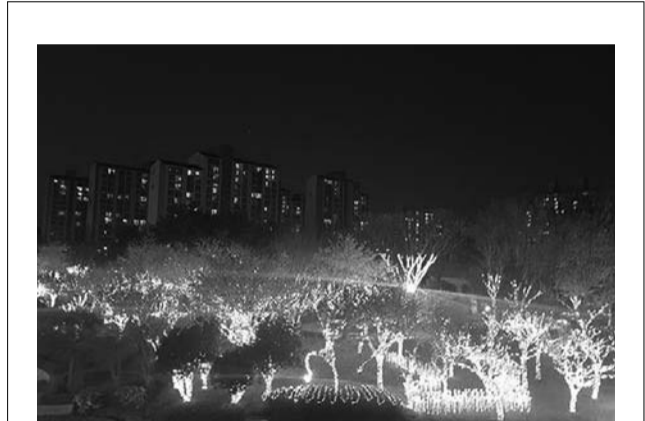
간담회에서는 김차영 전북분원장이 연구소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연구분야, 연구인력, 연구실적 등을 설명했다. 이어 기업체와 기술 사업화 방

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차영 전북분원장은 "앞으로도 기업체와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기술이전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기업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연구소와 기업체 간 산학연계가 좋은 모델"이라며 "연구소가 중소기업의 R&D 역할을 수행하고 기업체는 기술력 있는 제품을 생산한다면 반드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우뚝서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연구소와 기업체의 가교역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제7회 부안마실축제 '별빛마실' 점등식이 오는 22일 오후 6시 30분 부안매장공원 내 매창테마전시장 앞에서 개최된다.

밤마실, 찬란한 불빛으로 물들여

부안마실축제 '별빛마실' 점등식 22일 개최

부안군은 제7회 부안마실축제 '별빛마실' 점등식을 오는 22일 오후 6시 30분 부안매장공원 내 매창테마전시장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별빛마실'은 제7회 부안마실축제 야간 경관 프로그램으로 22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오는 6월 3일까지 43일간 매창공원 밤마실을 찬란한 불빛으로 아름답게 수놓는다.

부안군은 올해 처음으로 제7회 부안마실축제의 밤마실 테마 '별빛마실'을 주제로 화려하게 불을 밝히며 주민들과 전국의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또 테마별사거리~하이마트 사거리 구간에는 매창공원 '별빛마실'

과 연계해 은하수나무와 별빛나무 60여 그루를 연출한다.

이와 함께 변화기에 어울리는 은하수게이트를 설치해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걷고 싶은 아름답고 낭만적인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7회 부안마실축제는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먹거리, 부안만의 색깔이 있는 특산물을 바탕으로 정과 인심, 이야기와 추억을 함께 나누는 축제이다.

부안마실축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안마실축제 홈페이지(www.bunmsil.com)를 참고하면 된다. /부안=김석진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featuring product images, promotional text, and gift set options.